

에너지 수급 브리프

2014. 9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2분기 수송용 경유 소비 증가세 크게 둔화¹⁾

지난해부터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견인해 오던 경유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2014년 2분기에는 보합세를 보이며 주춤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단체여행 감소 및 대규모 행사 취소 등에 따른 도로·해운 등에서의 운송수요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문 부연구위원(paragon@ke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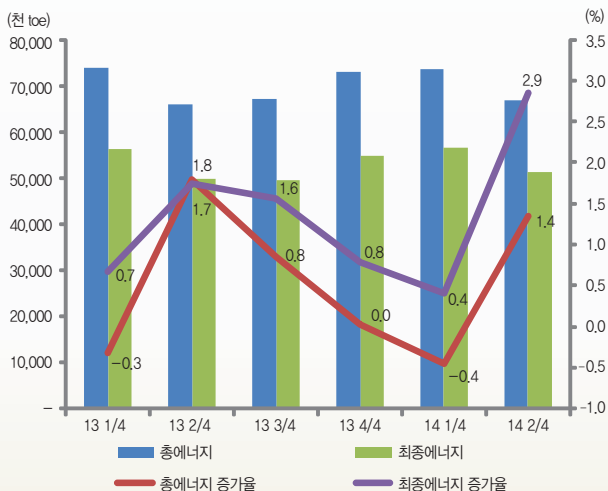
이상열 부연구위원(akan539@keei.re.kr)

2분기 총에너지 소비 1.4% 증가

2014년 2분기 총에너지 소비는 1.4% 증가한 66.9백만 toe를 기록하였다. 일차에너지원별 동향을 보면, 따뜻한 날씨의 지속과 원전 재가동에 따른 기저설비 확충으로 천연가스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15.8%)하였다.

반면 석탄 소비는 발전용 소비가 감소하였지만, 산업용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1% 증가하였다. 석유 소비는 납사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유의 감소로 0.6%의 보합세를 보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지난해 가동 중지되었던 일부 원자력 발전소(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으로 27.3% 급증하였다.

총에너지·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2.9% 증가한 51.3백만 toe를 기록하였다. 33.8백만 toe를 소비한 산업부문은 납사(5.0%)와 원료탄(21.1%) 등 비에너지용(9.6%) 소비의 급증으로 6.7% 증가하며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견인하였다. 산업용 전력 소비는 3.2%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2분기 연속 둔화하였다.

가정·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비는 지난해에 비해 따뜻한 날씨로 난방도일²⁾이 크게 감소(-43.1%)하면서 7.9% 감소한 8.1백만 toe를 소비하였다.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무연탄, 열에너지 소비는 각각 19.0%, 32.7%, 21.2% 감소하였다.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0.1% 소폭 감소하면서 9.4백만 toe를 소비하였다.

수송용 경유소비 증가세의 현저한 둔화

2분기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1분기에 이어 보합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수송모드 및 에너지원별로 구분해 보면 서로 상이한 추세가 나타난다.

먼저 수송모드별로 볼 때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부문 에너지소비는 2분기에 0.1% 증가하며 1분기의 1.1%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1분기에 대폭 감소했던 철도, 해운 등은 2분기 들어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며

1) 본 글에서 사용된 수치는 에너지통계월보 기준이며, 모든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임

2) 난방도일은 18℃를 기준으로 일평균온도와의 차이를 누적 합산한 값으로서, 난방용 에너지 수요의 양을 정량화하는 개념임.

수송부문 전체적으로는 보험세를 시현하였다.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를 에너지원별로 구분해 보면 1분기에 3.4% 증가했던 경유소비가 2분기 들어 0.4%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두드러진다. 경유소비는 지난 2013년 이후 3~6%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해 왔기에, 2분기의 보험세 기록은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휘발유, LPG, 중유 등의 소비는 1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며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전체적으로 보험세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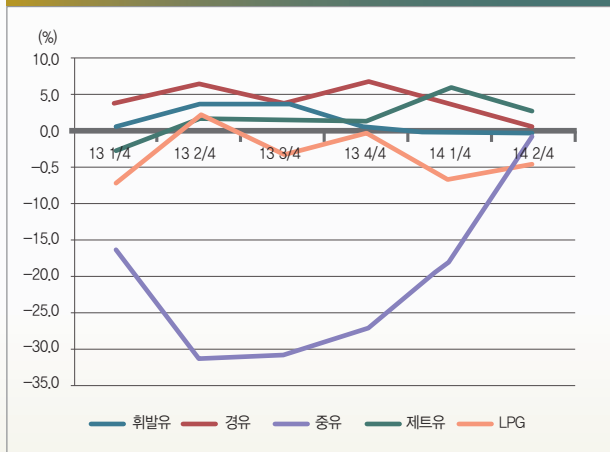
수송부문 수송모드별 에너지 소비

(단위: 천 toe)

	수송합계	철도	도로	해운	항공
'13 1분기	8,885.9	94.9	7,191.2	693.8	905.9
	(-0.6)	(-4.2)	(1.3)	(-14.1)	(-3.0)
'13 2분기	9,384.9	88.1	7,751.4	608.0	937.4
	(1.7)	(1.6)	(5.1)	(-27.7)	(1.6)
'13 3분기	9,619.6	81.1	8,019.4	558.4	960.6
	(0.3)	(-11.2)	(3.0)	(-26.4)	(0.9)
'13 4분기	9,525.5	77.9	7,936.7	572.6	938.2
	(1.4)	(-15.9)	(4.0)	(-23.3)	(1.4)
'14 1분기	8,882.4	75.5	7,271.6	575.8	959.5
	(0.0)	(-20.5)	(1.1)	(-17.0)	(5.9)
'14 2분기	9,374.5	72.8	7,757.0	580.9	963.8
	(-0.1)	(-17.4)	(0.1)	(-4.5)	(2.8)

주: 괄호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수송부문 석유제품별 소비 증감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경유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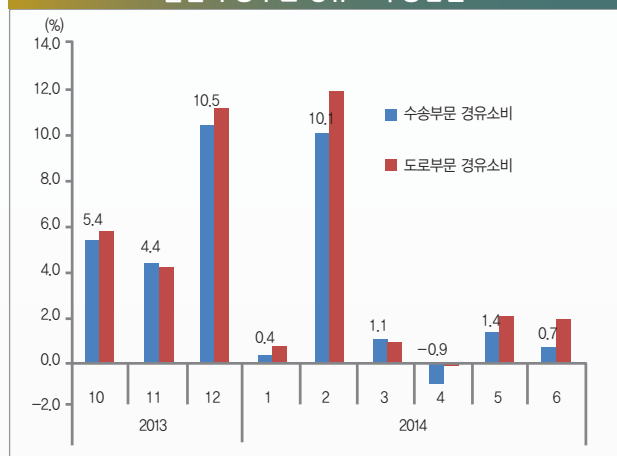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에서 단일 석유제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³⁾하고 있는 경유의 갑작스런 증가세 둔화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에너지소비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수송용 경유 소비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던 지난 4월에 처음으로 -0.9%의 감소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송모드별로 세분화 해 보면, 비중이 가장 큰 도로부문에서 0.1% 감소하였다. 소비 비중은 작으나 연안여객에서 사용하는 해운용 경유소비는 무려 27.9% 감소하였으며 철도부문에서의 경유소비도 13.1% 감소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학교에 수학여행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일반 대중들의 대규모 단체 행사·축제 등도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수송부문 경유소비의 증가세 둔화는 이러한 수송수요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부문의 경유소비는 사고 이후인 5, 6월에 각각 1.4%, 0.7%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반등하였지만, 4월의 감소세로 인해 2분기 경유소비는 그동안의 견조한 증가세를 마감하며 보험세를 기록하였다.

월별 수송부문 경유소비 증감률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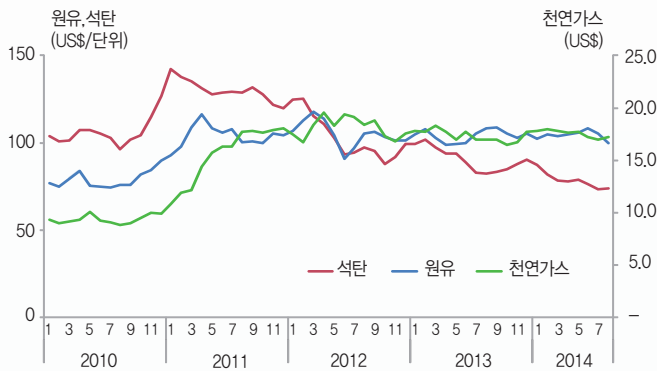
3) 2013년 기준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석유제품별 비중은 경유(43.0%), 휘발유(23.5%), LPG(12.7%), 중유(5.1%)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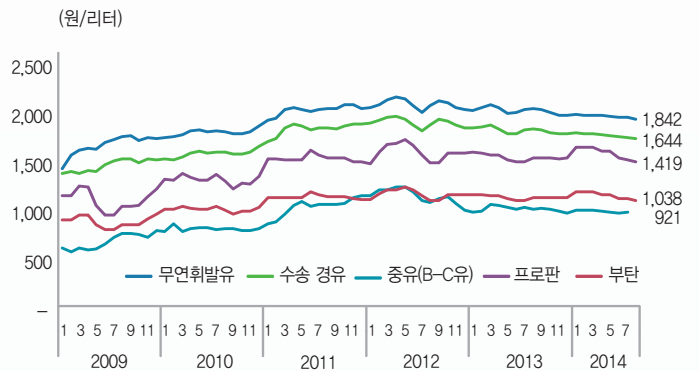
I 에너지 가격

- ▶ 8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1으로 전월대비 \$5.1, 전년 동월대비로는 7.4% 하락
 -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약세와 북미지역의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 석유 수급 완화에 기인
- ▶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은 각각 1,842원, 1,644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5.7% 하락
 - 전년 동월대비 국제유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의 하락(8.2%)에 기인
- ▶ 도시가스 평균가격은 21.9원/MJ으로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
 -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은 각각 5.0%, 4.8%, 6.2% 상승
- ▶ 7월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각각 147원/kWh, 119원/kWh으로 전년 동월대비 16.3%, 7.3% 상승
 - 주택용 전력 판매단가는 전년 동월대비 5.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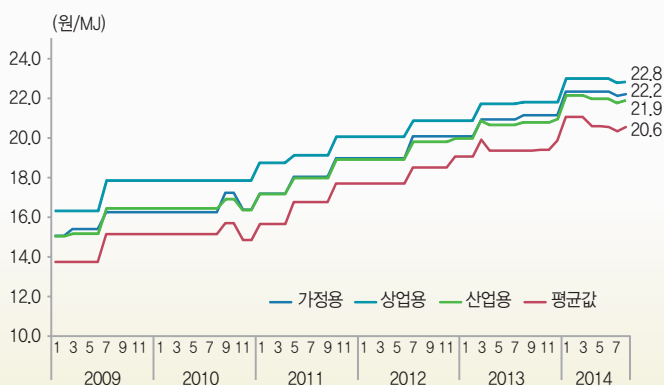
❖ 국제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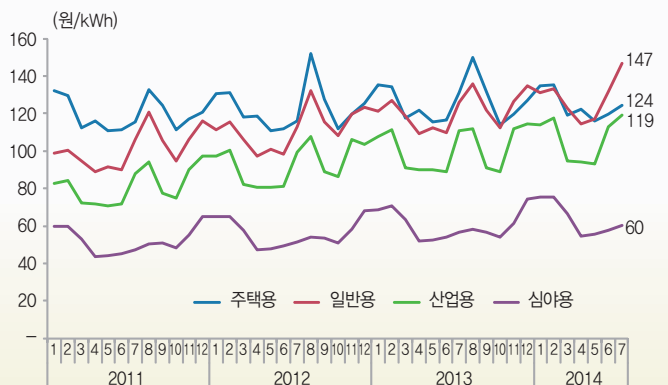
❖ 국내 석유제품 가격 추이



❖ 용도별 도시가스 가격 추이



❖ 계약종별 전력 판매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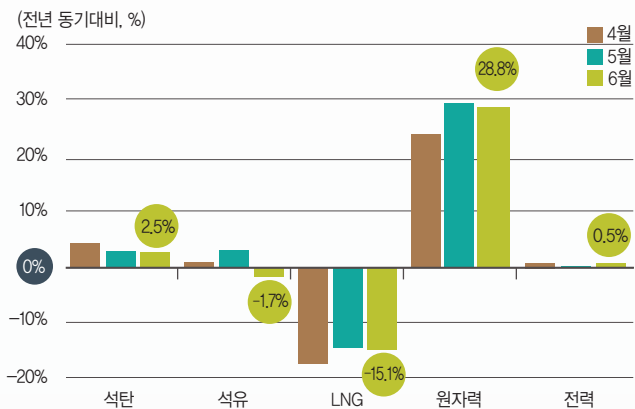


II 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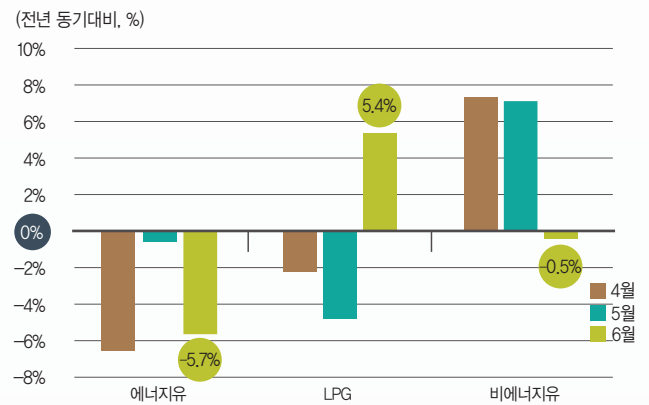
소비 동향 및 원별 에너지

- ▶ 6월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포함세 기록, 2분기로는 1.3% 증가
 - 석탄소비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에너지유(납사)소비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며 포함세를 시현
- ▶ 전력소비가 포함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LNG와 원자력 소비는 각각 -15.1%, 28.8% 기록
 - 원자력 발전량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재가동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발전용 LNG 소비는 감소세를 지속
- ▶ 석유소비는 비에너지유 소비의 감소로 1.7% 감소, 2분기로는 포함세 기록
 - 비에너지유소비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대체(납사→LPG)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산업용 LPG는 처음으로 증가세 반등
- ▶ 석탄소비는 발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비의 증가로 2.5% 증가, 2분기로는 3.1% 증가
 - 산업용은 철강산업과 시멘트산업에서 설비증설과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각각 9.0%, 28.9%로 급증세를 지속
- ▶ 전력소비는 가정·상업용의 감소로 소폭 증가에 그침, 2분기는 포함세 기록
 - 온화한 기온의 지속으로 가정·상업용 소비는 각각 5.5%, 0.1% 감소했으나, 산업용 소비는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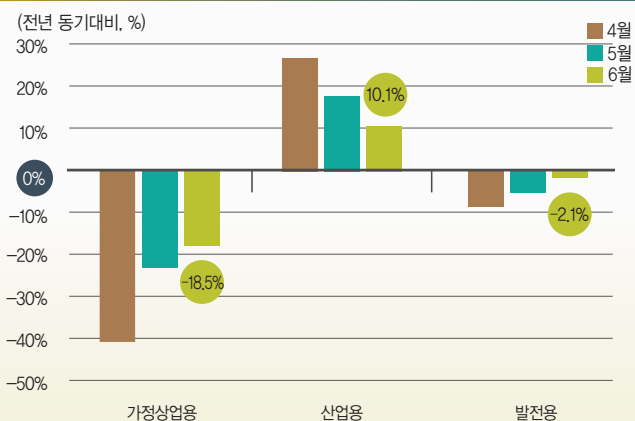
❖ 원별 에너지 소비 증감률(2014. 4 ~ 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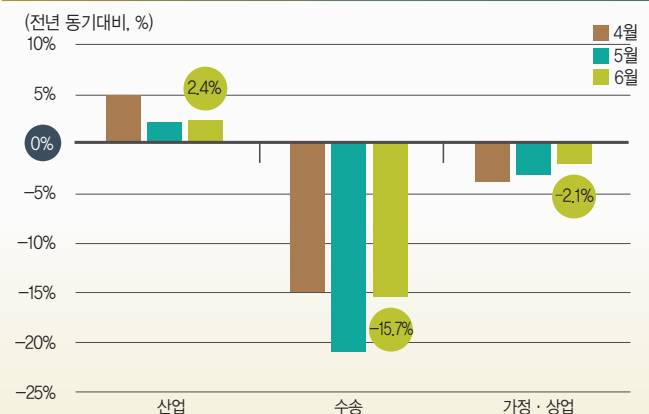
❖ 석유 소비 증감률 (2014. 4 ~ 2014. 6)



❖ 석탄 소비 증감률 (2014. 4 ~ 2014. 6)



❖ 전력 소비 증감률 (2014. 4 ~ 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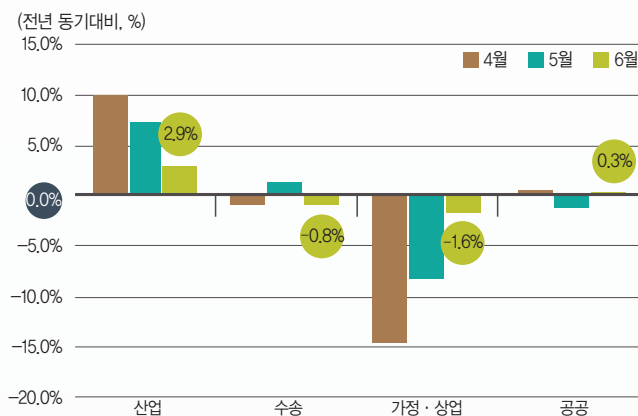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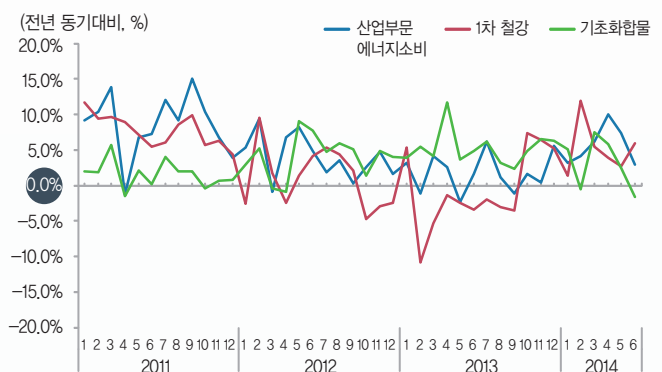
부문별 에너지

- ▶ 6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은 감소하였으나 산업부문이 증가하며 소폭 증가, 2분기로는 2.9% 증가
 - 산업부문 소비는 2.9% 증가하며 최종에너지소비를 견인하였으나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소비 증가율 기록
-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1차 금속 산업의 활발한 산업생산 활동으로 철강 산업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6.6%)하면서 2.9% 증가, 2분기로는 6.7% 증가
 - 납사 등 비에너지유 소비는 0.5% 소폭 하락하였지만, 산업용 LPG 소비는 증가함.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대체현상(납사⇒LPG)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0.8% 감소, 2분기로는 보험세 기록
 - 휘발유와 경유소비는 소비는 보험세를 지속하는 반면, LPG 소비는 감소세 지속
- ▶ 가정상업부문과 공공부문은 각각 -1.6%, 0.3% 기록, 2분기로는 각각 9.1%, 0.2% 감소
 - 서비스업지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온의 지속으로 가정·상업부문 도시가스와 전력 소비는 각각 5.0%, 2.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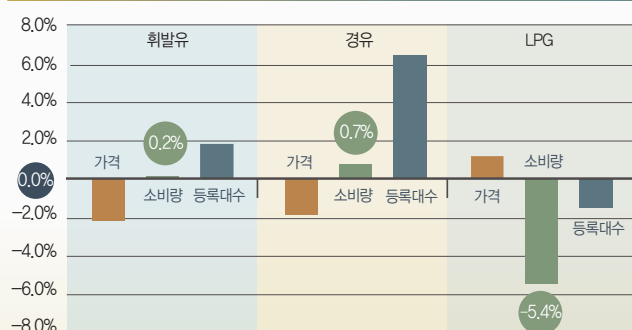
❖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 증감률 추이 (2014.4 ~ 6)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및 주요 업종 산업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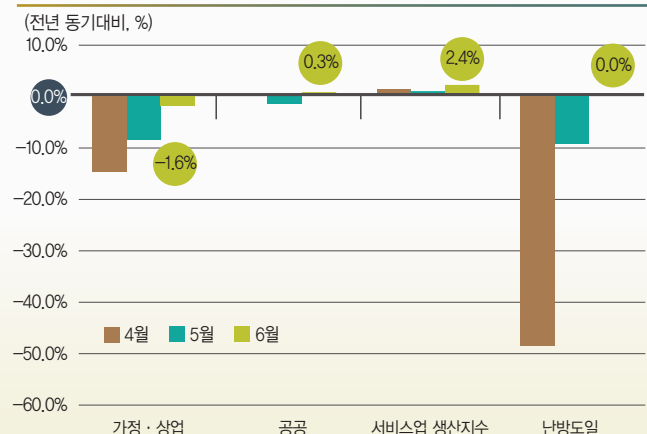


❖ 수송용 석유제품 관련지표 증감률 (2014.6)



주 : 가격은 소비자가격지수(2010=100) 기준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에너지통계월보, 국토해양통계누리

❖ 가정·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및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주요 에너지 지표

		2014								
					1분기				2분기	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 및 산업	경제성장률(%)	—	—	—	3.9	—	—	—	3.6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p	108.5	108.8	109.0	108.8	109.1	109.2	109.1	109.1	109.3
		(1.1)	(1.0)	(1.3)	(1.1)	(1.5)	(1.7)	(1.7)	(1.6)	(1.6)
	전산업생산지수 (2010 = 100)p	104.3	99.7	110.1	104.8	107.6	106.5	109.1	107.7	108.3
		(0.9)	(1.4)	(2.7)	(1.7)	(1.4)	(-0.6)	(1.6)	(0.7)	(2.7)
에 너 지 가 격	국제유가 -Dubai- (US \$/bbl)	105.0	104.4	104.5	104.6	105.6	107.9	106.1	106.1	101.9
		(-5.5)	(-1.1)	(-3.5)	(2.9)	(5.3)	(7.7)	(5.3)	(2.5)	(-4.8)
	원유도입단가 -C&F- US\$/bbl	109.7	108.3	108.3	108.8	107.9	107.7	108.9	108.2	109.2
		(-0.9)	(-4.0)	(-3.1)	(-2.7)	(1.4)	(3.8)	(6.1)	(3.7)	(4.8)
	휘발유 가격 (원/ℓ)	1,886	1,881	1,881	1,883	1,876	1,869	1,861	1,869	1,857
		(-2.0)	(-3.7)	(-5.3)	(-3.7)	(-3.8)	(-1.6)	(-2.1)	(-2.5)	(-4.0)
	수송경유 가격 (원/ℓ)	1,705	1,698	1,696	1,700	1,689	1,681	1,670	1,680	1,661
		(-2.5)	(-3.9)	(-5.0)	(-3.8)	(-3.2)	(-1.1)	(-1.8)	(-2.1)	(-3.9)
에 너 지 수 입	에너지수입액 (백만 US\$)	17,084	15,749	15,884	48,717	14,348	13,704	13,704	41,756	—
		(4.3)	(-1.4)	(0.7)	(1.3)	(0.0)	(-2.6)	(-1.9)	(-1.5)	—
	에너지순수입액 (백만 US\$)	12,284	11,823	11,224	35,330	9,939	9,029	9,965	28,933	—
		(7.5)	(4.1)	(3.3)	(5.0)	(-6.3)	(-8.4)	(3.4)	(-3.9)	—
	에너지순수입액 GDP	—	—	—	11.2%	—	—	—	8.3%	—
에 너 지 수 급	일차에너지공급 (백만 toe)	26.0	23.3	24.3	73.7	22.4	22.4	22.1	66.9	—
		(-3.0)	(0.5)	(1.5)	(-0.4)	(0.8)	(2.8)	(0.5)	(1.3)	—
	최종에너지소비 (백만 toe)	19.8	18.0	18.6	56.4	17.5	17.1	16.7	51.3	—
		(-1.9)	(0.9)	(2.5)	(0.4)	(3.2)	(3.7)	(1.6)	(2.9)	—
	전력소비 (Twh)	43.8	41.2	40.6	125.6	39.3	37.4	37.5	114.2	—
		(-1.6)	(0.5)	(2.8)	(0.5)	(0.7)	(-0.2)	(0.5)	(0.3)	—

주 : p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에너지통계월보

발행인 : 손양훈

편집인 : 연구위원 김태현

부연구위원 김철현

부연구위원 이승문

부연구위원 이상열

위촉연구원 장선화

위촉연구원 임덕오

디자인 :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